

체코 찰스(Charles)대학의

한국학 운영 현황과 과제

인문대학(Filozofická Fakulta[Faculty of Arts]) 한국학 전공을 중심으로

황문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국어학 전공

hmhmoon@aks.ac.kr

- I. 머리말
 - II. 체코 내 한국학의 역사
 - III. 찰스대학의 한국학 전공 학생과 교원 현황
 - IV. 찰스대학의 한국학 강좌 현황
 - V. 찰스대학의 한국학 관련 기타 현황
 - VI. 맺음말
-

I. 머리말

체코 찰스대학(Charles University[Univerzita Karlova])¹은 1348년 개교하여 동유럽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학이다. 뿐만 아니라 신흥(emerging)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2018년 대학 평가에서는² 상위 250개 대학 중 5위를 차지할 정도로 평판이 높은 대학이기도 하다. 찰스대학에서 한국학은 중국학, 일본학 등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전공 체제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 이미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동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다.

찰스대학의 한국학 역사는 체코를 비롯하여 동유럽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친 체제 전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유럽에서는 공통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했다가 1980년대 말 냉전 체제의 종식과 함께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체제로 전면적인 전환을 겪었다.³

* 이 글의 작성은 2018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파견 연구비 지원에 따라 이루어졌다. 필자는 2018년 2월 21일부터 2019년 2월 14일까지 체코 찰스대학 한국학 전공의 초청으로 1년간 프라하에 체류하였다(host: 토마쉬 호락 교수). 이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 찰스대학 한국학 전공의 토마쉬 호락 교수와 정연우 교수, 팔라츠키대학의 콰부모 교수께서는 관련 논문과 자료를 아낌없이 제공하며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셨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 유학중인 로만 학생은 체코어로 된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아낌없이 도움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 1 '찰스'는 영어식 발음이고, 체코어에서는 '까를/까렐'로 발음된다. 이 글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찰스대학'으로 지칭한 점을 고려하여 영어식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 2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인 Quacquarelli Symonds(QS)의 'Top 10 Universities in Emerging Europe & Central Asia 2018'에 따른 것이다(www.topuniversities.com).
- 3 "동유럽에서 한국학은 한국전쟁 종전 이후 동유럽 국가들과 북한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한국학은 조선학(북한학)으로 일컬어지면서 1980년

이러한 체제 전환과 맞물려 동유럽에서는 애초 북한과 밀접한 ‘조선학’(북한학)으로 출발했다가 1990년대 이후 남한과 밀접한 ‘한국학’으로 선회한 공통점이 발견된다. 찰스대학 역시 마찬가지로 1991년 한국과 국교가 수립되는 것을 계기로 북한 중심의 ‘조선학’이 남한 중심의 ‘한국학’으로 선회하는 계기를 맞는다. 이후 인적, 물적 교류가 급증하면서 한국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계기를 맞는데 2010년대 들어서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맞물려 찰스대학은 동유럽의 한국학을 선도할 ‘해외한국학 거점 대학’으로 발돋움하기에 이른다.

국교 수립 이후 찰스대학에서 이루어진 한국학에 대해서는 그동안 찰스대학에 재직하는 전임 교원을 통해 반복적으로 소개가 이루어졌다. 푸체크(1991)를 위시하여 Horak(2011, 2012, 2016a), Zemánek(2017) 등이 그것으로, 이들은 유럽 내지 동유럽의 한국학 현황을 소개하거나 진단하는 자리에서 당시의 찰스대학 한국학 전공을 대략적으로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소개’에 치중하는 성격상 한국학 전공의 현황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검토하거나 그것을 바탕으로 현실적 난점 내지 과제를 파악하기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찰스대학의 한국학 전공을 대상으로 현재의 운영 현황을 가능한 한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검토하고 능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 난점과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학 전공 학생과 교원 현황(Ⅲ장), 한국학 강좌 현황(Ⅳ장), 한국학 관련 기타 현황(Ⅴ장) 등으로 나누어 논의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중국학, 일본학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호간의 차이를 파악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 논의되는 찰스대학의 운영 실태는 동유럽의 상당수 대학에

대 말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동유럽 국가들이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되기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1989년 헝가리를 필두로 1990년까지 남한과 수교한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학 연구의 방향을 남한학으로 선회하였고……” (박수영 2006: 400).

공통될 수 있으므로, 이 글은 찰스대학을 넘어 동유럽 내 한국학 진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II. 체코 내 한국학의 역사⁴

체코 내 한국학은 유럽 내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50년대 초 찰스대학교에 조선학 전공 과정이 처음 설치되면서⁵ 그 이후 지금까지 70년 가까운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1950년대에는 체코(당시는 체코슬로바키아)가 6.25 전쟁을 겪은 북한을 지원하면서 여러 형태의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체코 의료진을 북한으로 파견하기도 하고 북한의 전쟁 고아와 학생을 체코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적 교류에 따라 자연스레 언어 전문가가 필요해지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조선학 전공에서는 언어 공부에 비중을 두면서 기초 교재 개발에 노력하였다. 소수의 졸업생들은 주로 통역관, 외교관, 기자 등의 직업에 종사하였다(Horak 2012: 27). 전공 설치 초기에는 극히 제한된 국제 교류와 연구 자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만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교과서와 입문서

4 이 부분은 Pucek(2015)에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잘 소개되어 있다. 다만 체코어로 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고의 편의상 Pucek(2015)에 앞서 Horak(2011)과 Horak(2012)에서 한국어로 간략히 소개된 부분을 주된 출처로 제시하였다. 참고한 부분은 대체로 간접 인용 방식을 취하되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침삭과 운문을 더했음을 밝혀 둔다.

5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역사는 1940년대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립 동양연구소에서 야간 조선어 강습이 시작되었고(Horak 2018: 53), 제2차 세계대전 말년에야 A. Pultr라는 고등학교 교사가 조선 망명자들로부터 조선어를 배우고 체코가 해방된 직후 동양연구소에 들어가 조선어와 조선 문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다(Horak 2012: 27).

편찬 등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1960-1980년대에 걸친 기간에는 Vladmir Pucek 교수⁶가 조선학 전공을 이끌어 가면서 수십 명의 후계자를 육성하고 기초 조선어, 조선 문자 입문, 조선어 회화, 조선 역사, 지리, 경제 입문 등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많이 마련하였다(Horak 2011: 109).

후학을 육성하는 일과 더불어 조선학 전공에서 담당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다른 분야 전문가나 일반인을 상대로 한국(조선)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는 것이었다. Pucek 교수를 비롯한 조선학 전공 출신들은 고대 신화와 설화, 고대소설, 시조와 가사, 근대 단편소설 등 많은 작품을 번역하여 체코에 소개하였다. 사회주의 체제상 한계는 불가피 하였으나 체제와 관련된 정치적인 문제나 선전/선동적인 내용을 피하기 위하여 주로 분단 이전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 대상으로 삼았다. 문학 분야에서도 현대문학보다는 김시습의 『금오신화』, 김만중의 『사씨남정기』 등과 같은 고전문학이나 나도향, 최서해 등의 근대문학 작품을 보다 많이 번역하였다(Horak 2012: 27-28).

1990년을 전후해서는 체코의 정치 체제와 외교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냉전 시대가 종식되고 공산권이 붕괴하면서 체코(당시 체코슬로바키아)는 대외 개방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향한 길에 올랐다. 당시 한국은 1970-1980년대의 경제적 급성장과 1990년대의 성공적인 민주화를 바탕으로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1989년에 체코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자 체코와 한국은 본격적인 접촉을 갖게 되고 1990년에는 두 나라 사이에 정식 국교가 수립되었다(1993년에는 슬로바키

6 Pucek 교수는 1972년부터 2004년까지 찰스대 한국학 전공의 책임자로 있었다. 이후 체코슬로바키아 및 체코공화국의 한국학 발전과 한국어 보급에 일생을 바친 점이 인정돼 2011년 한국 정부로부터 보관문화훈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아가 분리되면서 체코 공화국과 국교 수립). 반대로 1960년대부터 점차 위축되던 북한과의 관계는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체코의 체제 변화로 국가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난 대학교에서는 외국과의 교류를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찰스대학교 한국학 전공은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한국의 여러 기관과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다(Horak 2012: 28-29). 이를 통해 한국과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가 진행되면서 조선 문화어 대신 한국 표준어가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고 조선학 대신 한국학이라는 명칭이 널리 쓰이는 변화도 자연스레 이루어졌다.⁷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의 정치,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한국 문화도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K-pop, 영화, TV 드라마 등으로 대표되는 대중 문화가 많은 나라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꾸준한 현대화, 세계화의 추진 노력으로 한국 고유의 전통 문화도 인류의 문화 유산 가운데 일부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체코에서도 한류의 영향 등으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향상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학의 위상도 제고되었다. 대개 각 나라의 한국학 규모는 그 나라와 한국 사이의 교류 협력 관계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활발한 교류와 상호 접촉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유발되고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체코도 예외가 아니라 할 수 있다. 2010년 이후 인터넷을 통해 한국 문화가 보급되고 프라하와 서울 사이에 직통 항로가 확충되면서⁸ 인적 교류가 대폭 늘었다. 더욱이 경제 부문에서는 한국 제품의

7 단 체코어로 조선학과 한국학은 동일한 단어로 번역되기 때문에 체코어로 된 전공 명칭('Koreanistika')은 변하지 않았다.

8 2004년 대한항공이 프라하로 직항 노선을 취항한 데 이어 2013년 대한항공이 체코 항공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운항 편수가 주당 6회로 증회되었고, 체코항공 또한 2013년부터 주 2회 프라하-인천 노선을 운항하기 시작하였다.

대량 수입으로 교역 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와 두산중공업
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제 “한국
어와 한국학은 이국적이고 이채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문화의 뿌리를 알고자 하거나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소망 전공”(Horak 2012: 28-29)이 되고 있는 현실이
다.¹⁰

III. 찰스대학의 한국학 전공 학생과 교원 현황

한국국제교류재단의 2018년 ‘해외 한국학 백서’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
서 한국학/한국어 전공과정을 운영하는 곳은 주요 대학을 포함하여 총
87개국 464개 기관에 이른다(한국국제교류재단 2018: 8). 각 기관에서 운영
하는 한국학 수준은 현지 사정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이는데 곽수민(2012:
214-220)에서는 ①전공 과정의 설치 형태(academic status), ②전임 교원의
수, ③개설 과목의 다양성 및 심도 등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해외 대학의

9 2017년 체코 주재 대한민국대사관 자료에 의하면 체코 GDP(국내총생산)의 3.5%를
한국 기업이 차지한다[곽부모(2019: 47 각주 7)에서 재인용].

10 최근 들어서는 한국학이 찰스대학을 넘어 보다 확산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2015년
올로모우츠의 팔라츠키대학(Univerzita Palackého v Olomouc)에 ‘비즈니스한국어
학’ 전공이 신설된 것을 그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학사 과정에 이어 2019년에는
석사 과정도 개설). 또한 오스트라바대학(Ostrava University)이나 메트로폴리탄대
학(Metropolitan University)에서는 기초 단계에 지나지 않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
공식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기도 하였다(곽부모 2019: 51-52). 이에 더하여 사실
외국어 학원에서 학습자 ‘맞춤형’으로 한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도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례에서도 찰스대학 한국학 전공 출신이 관여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찰스대학의 한국학 전공을 빼놓고서는 체코 내 한국학의 역사를
말하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 하겠다.

한국학 수준을 ‘초기단계’, ‘발전단계’, ‘성숙단계’의 3단계로 나누어 본 바 있다.¹¹ 그 결과 2012년 당시 “현 시점의 해외 한국학은 일차적인 학위과정을 통해 전임 교원 2명 이하의 인원과 다수의 강사진이 한국어를 중심으로 일부 인문학을 가르치는 형태”가 가장 보편적임을 보고하였다(곽수민 2012: 218). 이러한 보고 결과를 염두에 두면서 아래에서는 찰스대학의 한국학 현황을 학생과 교원 현황(III장, 기준 ①, ②와 관련), 강좌 현황(IV장, 기준 ③과 관련), 기타 현황(V장)의 순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1. 학생 현황

2018/2019학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찰스대학 한국학 전공에 재학 중인 학생 현황을 과정별로 제시해 보이면 아래 표와 같다(출처: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대학한국학현황 온라인데이터베이스¹²).

11 단계별 분류 기준을 보다 자세히 보이면 아래 표와 같다(곽수민 2012: 218 각주 8).

| 단 계 | 분류 기준 |
|-------|----------------------------|
| 초기 단계 | 언어·교양 과정 개설, 일부 부전공 개설 |
| | 전임 교원 수 0-2명 |
| | 언어 과정만 개설 |
| 발전 단계 | 학부 과정 혹은 석사 과정 개설 |
| | 전임 교원 수 3-5명 |
| | 언어학, 인문학이 혼재하며 개설 |
| 성숙 단계 | 비중 있는 박사 과정 개설 |
| | 전임 교원 수 5명 이상 |
| | 인문·사회 분야의 다양하고 세분화된 주제별 접근 |

12 관련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2018년 2월에 작성된 통계): www.kf.or.kr/koreanstudies/koreaStudiesList.do?searchInstHgNm=%EC%B0%B0%EC%8A%A4%EB%8C%80%ED%95%99.

표1-2018/2019학년도 찰스대학 한국학 전공 재학생 현황

| 학사 과정(B.A.) | | | 석사 과정(M.A.) | | 박사 과정 ¹³ (Ph.D.) |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1학년 | 2학년 | |
| 54 | | | 14 | | 5 |

위의 표에서 학사 과정이 3년으로 된 것은 ('학사 3년, 석사 2년, 박사 3년'의)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¹⁴에 따른 것이다. 이 프로세스는 유럽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유럽연합(EU)

- 13 박사 과정은 한국학만의 독립 체제가 아닌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학은 중국학, 일본학 등 다른 지역학과 더불어 '아시아·아프리카 언어 전공'(14명), '아시아·아프리카 문학 전공'(16명), '아시아·아프리카 역사와 문화 전공'(20명) 내에서 세부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표1에 제시된 박사과정 재학생은 해당 전공에서 박사 논문 주제를 한국학 쪽으로 택한 학생 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14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29개 유럽 국가들이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모여 2010년까지 단일한 고등교육체도를 설립, 유럽 대학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1999년에 출범한 프로그램이다(볼로냐 선언). 그 후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도 참여해 회원수가 48개국으로 늘었다.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르면 가맹국 내에서는 대학 졸업장 하나로 모든 나라를 넘나들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유럽 어느 대학을 나오든 유럽 국가에서는 어디서든지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 프로세스에서 역점을 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대학들의 학위제를 통일시켰다. 이전까지 유럽 대학들은 학사와 석사 과정을 통합해 배우는 마스터 과정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볼로냐 프로세스는 이를 미국식 학사, 석사, 박사 제도로 학제를 개편했다. 3년의 고등교육을 받은 후에는 학사학위를 받아 직업 세계에 뛰어들 수 있도록 개편하였고, 학사 학위 취득 후 추가적인 연구는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밟도록 하는 3-2-3 시스템을 유럽 공통 표준 모델로 하게 되었다. 둘째, 대학 교육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국가인증제도'가 도입되었다. 대학 통합이 가능하려면 유럽의 모든 대학들이 일정 수준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자면 국가 차원에서 대학 교육의 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대학 교육의 질을 관리 할 수 있게 된다. '국가인증제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인정받은 나라의 대학들끼리는 졸업장이 어느 나라에서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볼로냐 프로세스는 유럽 공통의 교육 프로세스로서, 상호 경쟁이 치열한 여러 기업들이 합병, 제휴를 하는 것처럼 유럽 교육계에서 대학들이 제휴와 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출처: 위키백과(ko.wikipedia.org)].

내 대학간의 학점 교환 및 이동 수업을 자유롭게 하는 동시에 유럽대학연합(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에서 정한 표준화 교육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곽부모 2018: 41). 체코에서는 기존의 학제(5년 기간의 마스터 과정)를 폐지하고 1999년 출범 당시부터 볼로냐 프로세스에 참여하여 학사 과정(3년)과 석사 과정(2년)이 분리된 현재의 학제를 운영하고 있다. 인문대학 연합(Filozofická Fakulta)(2018)에 따르면, 현재의 재학생 수(학사 54, 석사 14)는 중국학(학사 64, 석사 10)이나 일본학(학사 62, 석사 14)에 견주어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확인된다.¹⁵

그런데 표1과 같은 재학생 현황은 2010년대에 들어와 정착된 것으로 과거와 비교할 때 신입생 선발에 커다란 변화를 겪은 결과이다. 학사 과정의 경우 1950년대에는 입학 정원에 맞추어 강제로 학생을 배정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1960-1980년대에 걸친 기간 동안에는 5년에 한 번만 학생 몇 명씩만 선발하고, 1990년대에는 3, 4년에 한 번, 최대 8명 정도를 입학생으로 뽑았다(Horak 2018: 53). 그런데 2000년대 이후,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외부적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급격히 늘어나는 교역, 한국 기업들의 투자 진출, 인적 교류 및 관광객의 대거 입국, 한국 대중문화의 확산 등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위상이 크게 향상되면서 한국어 내지 한국 문화의 공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말까지 간헐적으로 개설되던 한국학 전공 과정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격년제로 바뀌고 2005년부터는 매년 개설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정원을 채울까 말까 했던 지원자 수가 꾸준히 늘어 2010년대 이후에는 높은 경쟁률을 유지하면서 거의 매년 15명의 입학생을 뽑기에 이르렀다(Horak 2018: 54). 이러한 선발 결과가 오늘날 표1과 같은 재학생 현황으로 이어지고

15 물론 몽골학(학사 9, 석사 5), 인도학(학사 22, 석사 11), 티베트학(학사 13, 석사 3), 터키학(학사 8, 석사 5) 등 아시아 관련 다른 전공과 비교하면 격차가 큰 편이다.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2010년대 들어 한국학 전공에 대한 관심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점이다. 재학생 현황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입학 시점을 기준으로 전공별 지원자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학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여실히 볼 수 있다. 아래는 지난 10년간 전공별 학사 과정 지원자 현황을 표로 보인 것이다.

표2- 지난 10년간 전공별(한국학, 중국학, 일본학) 학사 과정 지원자 현황(〈 〉 안의 숫자는 입학 정원을 표시)[출처: Filozofická Fakulta(2009-2018)]

| 학년도 전공 | 09/10 | 10/11 | 11/12 | 12/13 | 13/14 | 14/15 | 15/16 | 16/17 | 17/18 | 18/19 |
|-----------|-------------|-------------|-------------|-------------|-------------|-------------|-------------|-------------|-------------|-------------|
| 한국학 | 16 <15> | 44 <15> | 41 <15> | 54 <15> | 78 <15> | 62 <16> | 85 <16> | 71 <16> | 82 <16> | 100 <16> |
| 중국학 | 78 <20> | 81 <15> | 85 <20> | 71 <20> | 82 <17> | 81 <17> | 81 <17> | 69 <20> | 81 <20> | 67 <20> |
| 일본학 | 182 <20> | 224 <20> | 241 <20> | 229 <18> | 205 <15> | 171 <15> | 201 <15> | 165 <18> | 164 <18> | 125 <18> |

표2의 지원자 현황을 비교하면 다음 두 가지 사실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첫째, 한국학 전공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¹⁷ 입학 정원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원자가 늘어 2018/2019학 년도의 경우 경쟁률이 6:1을 넘을 정도로 입학 경쟁이 치열하다. 둘째, 이러한 증가세는 중국학이나 일본학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경쟁률 로만 보자면 이미 중국학(약 3:1)을 넘어 일본학(약 7:1)에 근접한 양상을

16 2009/2010학년도에는 신입생 선발이 없었다.

17 유독 2016/2017학년도에 지원자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2015년 팔라츠키대학에 '비즈니스한국어학' 전공이 신설된 것과 관련이 있다. 신설 전공에 128명이 지원한 것을 감안하면 해당 학년도에 거의 200명의 지원자가 한국학 분야에 몰린 셈이다 (Horak 2016a: 17).

보인다. 일본학은 최근 지원자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는데 한국학은 이와 대조적 추세를 보여 주목된다.

그러나 학사 과정과 달리 석사 과정에서는 한국학 전공에 대한 선호 추세가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다.

표3- 지난 10년간 전공별(한국학, 중국학, 일본학) 석사 과정 지원자 현황(〈 〉 안의 숫자는 입학 정원을 표시)[출처: Filozofická Fakulta(2009-2018)]

| 학년도 전공 | 09/10 | 10/11 | 11/12 | 12/13 | 13/14 | 14/15 | 15/16 | 16/17 | 17/18 | 18/19 |
|-----------|-----------------------|------------|------------|------------|------------|------------|------------|------------|------------|------------|
| 한국학 | ¹⁸ 〈10〉 | 8 〈10〉 | 9 〈10〉 | 2 〈10〉 | 9 〈15〉 | 11 〈10〉 | 9 〈10〉 | 7 〈6〉 | 4 〈6〉 | 13 〈8〉 |
| 중국학 | 8 〈10〉 | 12 〈10〉 | 15 〈10〉 | 13 〈15〉 | 24 〈15〉 | 19 〈15〉 | 10 〈15〉 | 3 〈20〉 | 13 〈20〉 | 21 〈20〉 |
| 일본학 | 19 〈10〉 | 17 〈10〉 | 16 〈10〉 | 18 〈10〉 | 23 〈8〉 | 18 〈15〉 | 16 〈15〉 | 17 〈15〉 | 21 〈15〉 | 8 〈15〉 |

위 표3에서 보듯이 학사 과정과 달리 한국학 전공의 석사 과정에서는 매년 지원자가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인다. 중국학이나 일본학과 비교할 때 지원자의 변동이 훨씬 심한 경향을 살필 수 있다. 입학 정원의 변동을 기준으로 하면 더욱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중국학(10→15→20)이나 일본학(10→15)은 입학 정원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유지한 반면 한국학(10→6→8)에서는 2016/2017학년도를 기점으로 오히려 입학 정원이 감소되는 양상까지 관찰된다. 감소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앞서 학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원자 증가세를 감안할 때 한국학에 대한 관심도가 석사 과정으로 잘 이어지고 있지 못한 점만큼은 일단 지적할 수 있겠다.¹⁹

18 2009/2010학년도에는 신입생 선발이 없었다.
 19 Horak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점은 외부 여건과 무관하지 않다. 우선 한국으로 유학할 기회가 많아진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 장학금을 제공하는 학교가 많아

2. 교원 현황

현재 한국학 전공은 인문대학(Filozofická Fakulta[Faculty of Arts])에 소속된 독립 전공의 하나이다. 2018/2019학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찰스대학 한국학 전공에 재직 중인 교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4- 2018/2019학년도 한국학 전공 교원 현황(출처: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대학한국학현황 온라인데이터베이스)

| 교원 | 직위 | 담당 분야 | 학위 | 비고 |
|------------------------|------|------------------|-------------------|----------------------|
| Miriám Löwensteinova | 교수 | 한국문학 | 박사 (문학, 한국학) | 한국학연구소 소장 (전공 주임) |
| Tomáš Horák | 조교수 | 한국어학 | 박사 (언어학, 통번역학) | |
| Marek Zemánek | 조교수 | 한국철학 | 박사 (종교학, 한국학) | |
| Youn Woo Jung (정연우) | 전임강사 | 한국어 교육 체코어 교육 | 박사 수료 (체코어학) | |
| Vladislava Mazaná | 전임강사 | 한국어학 | 석사 (한국학) | |
| Jolana Blažičková | 시간강사 | 한국어 교육 | 석사 (한국학) | 한국학연구소 비서 |
| Karolina Šamánková | 시간강사 | 한국어 교육 | 석사 (한국학) | |
| Markéta Popa | 시간강사 | 한국역사 | 석사 (한국학) | |

유학을 선택하더라도 학비나 생활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찰스대학의 한국학 전공이 '문·사·철'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외교, 행정 등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한국학 전공의 학사 졸업자가 취업이 잘 되는 현실도 석사 과정의 부진에 한몫을 하고 있다. 체코에서는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대우가 대학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학사 졸업자가 굳이 대학에 남을 필요를 잘 느끼지 못한다. 학부를 졸업하기도 전에 취업하는 학생이 많은 상황에서 석사 과정의 부진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다.

표4에서 보듯이 한국학 전공에 소속된 전임 교원은 모두 5명이다. 이 가운데 조교수 이상 전임 교원은 3명으로 모두 전공 분야의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조교수 이상 전임 교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찰스대학의 한국학 전공은 대체로 '발전 단계'(조교수 이상 3-5명)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전임 교원 중 한국인 교원은 정연우(Youn Woo Jung) 교수가 유일한데 원어민으로서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학 전공에 소속된 교원의 전공 분야는 모두 문(文)·사(史)·철(哲)로 대표되는 인문학 분야와 관련이 있다. 그중에서도 전공 분야가 '문(文)', 곧 어문학 분야에 집중된 경향이 뚜렷한데 이는 전공 설치 이래로 어문학 분야를 중시하고 발전시켜 온 한국학 전공의 전통과 직결되면서 전임 교원의 규모와도 일부 관계된다. 중국학 전공에서는 전임 교원이 7명(조교수 이상 5명, 전임강사 2명), 일본학 전공에서는 전임 교원이 6명(조교수 이상 4명, 전임강사 1명, 초빙교수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전공에서는 문(文)·사(史)·철(哲)의 범위를 넘어 '문화'나 '경제' 분야의 전공자도 전임 교원에 포함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한국학 전공에서는 학술적으로 '현대'에 국한되지 않고 '고전 작품'을 폭넓게 다루는 경향도 발견된다(후술 V. 2. 참조). 이처럼 소속 교원이 현대 이전의 한국학을 담당할 능력을 갖춘 점은 찰스대학 한국학 전공의 또다른 특징으로 꼽힐 수 있다.

IV. 찰스대학의 한국학 강좌 현황

찰스대학에서는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라 학사, 석사, 박사 각 과정별로 독립적인 강좌 개설이 이루어진다. 최근의 2018/2019학년도를 기준으로

한국학 전공 학사 과정과 석사 과정에서 필수 과목으로 개설된 강좌 현황을 소개하면 각각 아래 표와 같다.

표5-2018/2019학년도 한국학 전공 학사 과정 필수과목 개설 현황[출처: 인문대학 학습계획(www.ff.cuni.cz/studium/studijni-obory-plany)²⁰]

| | 과목 | 담당 교원 | 수업 시간 | 학점 | 학기수 (13주) |
|----|----------------------------------|-------------------------------------|-------|----|-----------|
| 1 | 한국학 입문 | Marek Zemánek | 2 | 3 | 1 |
| 2 | 한국학 입문 세미나 | Tomáš Horák | 2 | 3 | 1 |
| 3 | 한국어 입문 (음성학/음운론, 문자론 등) | Tomáš Horák | 2 | 4 | 1 |
| 4 | 한국어 문법 I | | 2 | 9 | 2 |
| 5 | 한국어 문법 II | | 2 | 6 | 2 |
| 6 | 한국 문학 I | Miriam Löwensteinova | 2 | 5 | 2 |
| 7 | 한국 문학 II | | 2 | 6 | 2 |
| 8 | 한국 역사 I | Markéta Popa | 2 | 4 | 2 |
| 9 | 한국 역사 II | Miriam Löwensteinova | 2 | 3 | 2 |
| 10 | 실용 한국어 연습 I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 Youn Woo Jung, Jolana Blažičková | 4 | 7 | 2 |
| 11 | 실용 한국어 연습 II | | 4 | 6 | 2 |
| 12 | 실용 한국어 연습 III | Youn Woo Jung | 4 | 6 | 2 |
| 13 | 한자와 한문 | Marek Zemánek | 2 | 4 | 1 |
| 14 | 한자와 한문 읽기 | | 2 | 6 | 2 |
| 15 | 현대의 한국 | | 2 | 3 | 1 |
| 16 | 문학 작품 읽기 | Miriam Löwensteinova | 2 | 5 | 2 |
| 17 | 한국어 텍스트 읽기 | Karolina Šamánková | 2 | 6 | 2 |
| 18 | 언론 및 전문 한국어 읽기 | Tomáš Horák | 2 | 4 | 2 |
| 19 | 시청각 연습(듣기) | Youn Woo Jung | 2 | 4 | 2 |
| 20 | 학사 논문 세미나 | Miriam Löwensteinova | 2 | 4 | 2 |
| 21 | 한국어 어휘론 | Vladislava Mazaná | 1 | 4 | 2 |
| 22 | 동양 사상 (동아시아의 철학과 종교) | Jakub Maršálek | 2 | 9 | 2 |

20 본래 과목명 등이 체코어로 되어 있으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 유학 중인 로만 씨의 도움을 얻어 한국어로 번역, 제시하였다.

표6-2018/2019학년도 한국학 전공 석사 과정 필수과목 개설 현황[출처: 인문대학 학
습계획(www.ff.cuni.cz/studium/studijni-obory-plany)²¹]

| | 과목 | 담당 교원 | 수업 시간 | 학점 | 학기수 (13주) |
|----|----------------------|-------------------------------|----------|----|--------------|
| 1 | 한국어 문체(쓰기) | Youn Woo Jung | 2 | 9 | 2 |
| 2 | 한국어 발달사 | Vladislava Mazaná | 2 | 8 | 2 |
| 3 | 전문 텍스트 해독 | Tomáš Horák, Youn Woo Jung | 2 | 6 | 2 |
| 4 | 고전 해독 | Vladislava Mazaná | 2 | 6 | 2 |
| 5 | 한국어 이론 문법 | Tomáš Horák | 2 | 8 | 2 |
| 6 | 통/번역 연습 | Youn Woo Jung | 2 | 10 | 4 |
| 7 | 번역 세미나 | Miriam Löwensteinova | 2 | 5 | 2 |
| 8 | 고급 말하기 | Youn Woo Jung | 2 | 6 | 2 |
| 9 | 한국 역사 해석 | Miriam | 2 | 7 | 2 |
| 10 | 한국의 문학 창작 | Löwensteinova | 2 | 6 | 2 |
| 11 | 석사 논문 세미나 | Tomáš Horák | 2 | 3 | 1 |
| 12 | 문학/종교·철학/언어 연구 이론 입문 | 전임 교원 공동 | 2 | 9 | 2 |

표5와 표6의 강좌 개설 현황에서 우선 두드러지는 특징은 개설 과목이 무엇보다 문(文)·사(史)·철(哲), 그중에서도 ‘문(=어문학)’에 집중된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현재의 교원 구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공 설치 초기부터 한국학 전공에서 지향해 온 교육 목표와 관련되는 것이기도 하다. 곧 한국학 전공에서는 전통적으로 “한국의 언어, 역사, 문화, 사상 등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을 재구성한 뒤에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Horak 2011: 110-111, Horak 2018: 55) 교육 목표를 두었다. 따라서 찰스대학의 한국학 전공에서는 ‘실용’보다는 ‘학문’ 목적의 한국학(Horak 2011: 110-111, Horak

21 본래 과목명 등이 체코어로 되어 있으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 유학 중인 로만 씨의 도움을 얻어 한국어로 번역, 제시하였다.

2018: 55)에 초점을²² 두되 “무리하게 많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보다 차라리 수십 년 동안의 전통을 계승해서 언어와 언어를 출발점으로 하는 문과 분야 공부, 즉 문학, 역사, 사상 등을 한국학 학사/석사 과정의 주 내용으로”(Horak 2011: 111) 삼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교원 수급 등 현실적인 여건 내에서 나름대로 전통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다변화하는 학생들의 관심에 부응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이나 민주화 성과, 한류로 불리는 대중 문화 등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중요한 주제이지만 현재의 강좌 개설 체계 내에서는 본격적으로 수용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할 수 있다. 한국학 전공에서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 과목을²³ 늘리고 강좌 운영에 다양성을²⁴ 도모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은 제한적인 것이

22 이러한 특징은 최근 한국학 전공이 신설된 팔라츠키대학교와 비교할 때 확연히 드러난다. 팔라츠키대학에서는 2015년 9월 유럽 대학 중에서는 최초로 ‘비즈니스한국어전공’이 개설되었는데 이 전공은 “전문 한국어 구사능력 및 경제학 지식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실용한국어학으로 응용경제학과 같이 운영되는 학사과정이다. 현재 실용한국어학 68%, 경제학 32%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곽부모 2019: 47).

23 예컨대 “코리아 투데이”라는 선택 과목의 개설이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과목에서는 많은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진행되었는데, 주제코 한국대사가 “한반도 경제와 남북 관계”, 경제대 박사가 “한-EU FTA가 체코와 한국 경제 협력에 미칠 영향”, 북한 주제 체코대사관 서기관이 “북한 현황”, 체코 현대차 공장 직원이 “한국 기업 문화”, 영화대학 출신이 “현대 한국 영화”를 주제로 삼아 각각 특강을 했다.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들을 많이 다루어 한국학 전공뿐만 아니라 타 전공 학생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Horak 2011: 111).

24 예컨대 서진숙·장미라(2016)에서 시도된 블렌디드 러닝 과목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합한 강의 형태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시각각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 과목에 적용한 결과 교원과 수강생 모두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한 바 있다. 다만 학교의 멀티미디어 기기 사용 환경이 좋지 않아 온라인 강의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데 제약이 따르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었다.

현실이다. 중국학, 일본학의 수준으로 교원 확충을 우선 도모하는 가운데 제도적 보완 방안(예: 인적 교류 및 강의 파견 프로그램 활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문’ 목적의 한국학에 초점을 맞춘 특징은 한국어 강좌의 성격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실용’이 아니라 ‘학문’ 목적에서 한국어를 대상으로 삼는다고 할 때 그것은 “학습되는 언어(=한국어) 자체가 지적 탐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다른 인문, 사회 과학 분야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Horak 2011: 111) 이러한 성격상 한국어 강좌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언어학적 지식 획득 자체를 목적으로²⁵ 하는가 하면 독해 능력을 보다 중시하여 한국어 교육에서 ‘유창성(fluency)’보다 ‘정확성(correctness)’을 특별히 강조하기도 한다. 개설 강좌에서 ‘읽기’, ‘번역’, ‘해독’이 포함된 과목명이 자주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독해 능력이 중시되는 이상 교육 방법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직접 교수법 보다는 전통적인 문법번역식 간접 교수법을 선호하는 사실도 한국어 교육 상 한 특징으로 지적할 만하다. 이러한 특징은 아래에서 보듯이 체코 현지의 한국어 교육 여건과 무관하지 않다.

직접 교수법은 외국어에 많이 노출되어야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머릿속으로 유입되는 언어 정보량이 많아야 학습자가 언어 규칙을 도출할 수가 있고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교실밖에 한국어

25 예를 들자면 “한국어 연구 입문’이라는 과목을 개설하여 한국어의 계통, 유형론적 접근 및 구조적 특성, 한국어 음성/음운론과 문자론 등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한국 문법 시간에 한국어의 개별적 문법 형태들을 회화 수업에서처럼 기능적인 면에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범주를 위주로 체계적으로 설명한다”(Horak 2011: 112).

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고 학습시간이 부족한 외국에서는 오히려 간접 교수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학습자들에게 모국어로 문법이나 어휘를 설명하고 또는 번역식으로 모국어의 해당 표현을 가르치는 것이 외국어 습득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번역식 간접 교수법을 사용하면 일정한 수업 시간 동안 훨씬 많은 문형과 어휘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직접 교수법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깨칠 때까지 많은 예문과 부연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Horak 2011: 111).

교실 안에서만 한국어에 노출되는 환경과 학제 개편 이후 절대적 학습시간이 부족한 교육 여건상 간접 교수법이 보다 효율적이고 또한 불가피하다는 것이다.²⁶ 그러나 간접 교수법은 학습자의 자습을 많이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보다 큰 부담이다. 학생 개개인이 학습 어휘와 문형을 습득하여 유창하게 사용할 만큼 충분한 연습 시간이 없으므로 정해진 학습 진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실 밖의 자습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Horak 2011: 112).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학 전공에서는 아래와 같이 복합적 교수법을 모색하기도 한다.

일정한 교수법을 택해서 엄격히 활용하기보다 방법론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융통성 있게 가르치고자 한다. 굳이 언어교육 이론상의 개념을 사용해도 특징을 묘사하자면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서 시작하다가 청각 구두식,

26 여기에 수강생이 나중에 “한국인과 현지인 간에 중계자, 곧 통역자나 번역자 역할을 수행해야”(Horak 2011: 112) 하는 점도 고려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처하게 되지도 않는 일상 상황에 대한 적절한 언어적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한국어와 모국어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 즉 통·번역 기술을 애초부터 습득시켜야 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과 관련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한국과 본국, 한국인과 자기 나라 사람들 간에 중계자 역할을 해야 할 개인성이 크기 때문이다”(Horak 2008: 131).

의사 소통 접근 등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즉 기존 교수법을 대체하기보다 새로운 방법을 이용해 보자는 복합적 교수법이다(Horak 2018: 57).

복합적 교수법은 이미 부분적으로 한국어 강좌에 도입된 상태이다. 예컨대 한국어 실습(‘실용 한국어 연습’)을 체코 현지인과 한국인이 분담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말하기와 쓰기, 즉 언어 생성 영역은 한국인 교사가 담당하고 읽기와 듣기는 체코 현지인이 담당하여 서로가 보완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실습에서 의사소통 능력 신장과 직접 관련된 수업은 전체 취득 학점 180학점 가운데 겨우 11% 정도를 차지하여(Horak 2016a: 18) 아직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국학 전공에서는 최근(2015-2016년) 한국 정부(문화부)와 관련된 ‘세종학당’을 유치, 운영하여 한국어 교육을 보완하려는 노력도 기울였다(V. 1에서 상술). ‘세종학당’은 의사소통 중심의 직접 교수법을 주로 채택하여 표준화된 한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한국학 전공의 전통적 한국어 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적잖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행정 내지 운영상의 어려움이 만만치 않아 아직은 ‘세종학당’의 정착을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향후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한국학 전공에서는 전통적인 문법 번역식 간접 교수법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세종학당’에서는 의사소통식 직접 교수법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는 보완 체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있다.²⁷

27 복합적 교수법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Horak(2008: 132)에서 “자격있는 한국어 교사를 해외로 많이 파견해 주면 현지인 교사와 힘을 합쳐서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세종학당재단이나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지원하는 한국어 강사 파견 제도가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V. 찰스대학의 한국학 관련 기타 현황

1. 재정 지원 현황

1990년 국교 수립과 더불어 체코와 한국 간의 교류와 협력이 크게 늘면서 한국학에 대한 외부의 재정 지원도 본격화되었다. 특히 찰스대학 한국학 전공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2010년 이후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표7-2010년 이후 주요 재정 지원 현황[출처: Löwensteinova(2015), 찰스대학 철학대학(2016, 2017), Filozofická Fakulta(2009-2018)]

| 지원 기관 | 지원 프로그램 | 지원 기간 | 지원 금액 (단위: 천원) |
|---|--|-------------------------------------|---|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Korean Studies Promotion Service[KSPS], Academy of Korean Studies) |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 (Core University Program for Korean Studies) | 2010.07.07- 2015.07.06. (5년) | 70,000/년 |
| | | 2015.09.01- 2020.08.31. (5년) | 125,000/년 |
| 세종학당재단 (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 세종학당 지정·운영 사업 | 2015.01.01.- 2017.12.31. (3년) | 33,200/년 (2015-16) 38,000/년 (2017) |

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재정 지원

찰스대학 한국학 전공은 2010년부터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Core University Program for Korean Studies)’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해외 한국학 거점 대학²⁸을 발굴,

28 “한국학 전공에 일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당 수준의 학문적 능력을 확보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확고한 한국학의 학문적 인프라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국학 전공에서는 2010-2015년(5년)의 1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현재 2015-2020년(5년)의 2차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0년 이후 한국학 전공을 중심으로 '프라하 한국학연구소(Prague Center of Korean Studies, 2016년)'가 설립되고 학사 과정의 지원자 수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데서 확인되듯이(앞의 III. 1 참조) 1차 사업에서는 한국학 전공의 발전 의지와 적절한 시점의 재정 지원이 맞물려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²⁹ 2차 사업에서는 '거점 대학'의 학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특히 "학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전통의 백미(Highlights of Korean Tradition in the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를 핵심 주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고전문학, 철학, 언어를 아우르는 전통 한국학을 기반으로 체코 국내외 학자들을 통합"시키는 데 주된 목표가 있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체코 내외의 학자들과 공유하여 유럽 내에서 "전통 한국 연구의 중심지(hubs of research on traditional Korean)"(Zemánek 2017: 98)로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목된다.³⁰

있으며, 한국학에 대한 대학 본부 측의 지원 의지와 육성 의지가 있는 기관"을 가리킨다.

29 Löwensteinova(2015)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기간(2010-2015년) 동안 평가 대상 전 분야에서 초과 달성을 한 것으로 나온다.

| Classification | Original Plan | No. of Achievement | Achievement Rate | Remarks |
|---------------------------------|---------------|--------------------|------------------|---------|
| Monographs | 10~11 | 14 | 127~140% | |
| articles/chapters in monographs | Not specified | 41 | | |
| conferences organized | Minimum 3 | 10 | 333% | |
| conferences attended | Not specified | 67 | | |

30 실제로 한국학 전공에서는 유럽의 학술교환 프로그램인 Erasmus+(플러스) 프로그램이나 CEEPUS(Central European Exchange Program for University Studies)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동 연구나 공동 교육의 기회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참여하고 있다.

1차, 2차 사업을 통해 두드러진 발전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현재 한국학의 수준이 평가 지표상 '성숙 단계'(곽수민 2012)에 이르렀다고 하기는 어렵다. 학사 과정의 관심도가 학문적 차원의 석박사 과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현실이 우선 그러하다. 매칭 펀드(matching fund) 등의 방식을 통하여 한국학 전공의 발전 의지가 학교 당국에 제도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세종학당재단의 재정 지원

체코 프라하에 설치되는 '세종학당'은 체코인 및 체코 거주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고 보급하는 가운데, 체코 거주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양질의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코 내 한국학 관련 학과 재학생 및 진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여 학업 수행을 돕고 한국학 전공의 저변 확대를 돕는" 데 목적을 두었다(찰스대학교 철학대학 2016, 2017).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 방식은 찰스대학교와 운영 위탁 계약을 맺고 이를 바탕으로 '독립형' 운영을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찰스대학교는 강의실 및 사무 공간 등 운영 공간과 제반 시설, 회계·세무 등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종학당재단은 학당 운영 자금(지원금), 표준 교육과정과 교재, 언어·문화 교육 자료, 전문 교원을 지원하였다. 2015년부터 지원이 이어진 결과 초급 과정에 이어 중급 과정이 신설되는가 하면 여름방학 단기 과정도 개설되는 등 한국어 강좌나 수강생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찰스대학교 철학대학 2016, 2017).

특히 Erasmus+ 프로그램은 교환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 및 전문가들의 교환 방문을 지원하여 유럽 내 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있는데(곽부모 2012: 54 각주 17) 이 프로그램은 비유럽 국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한국학 연구 결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제도적 여건이 잘 활용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학 전공에 지원하거나 재학하는 학생들도 필요에 따라 수강하여 당초 목적에 거의 근접한 결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학당’은 의사소통 위주의 한국어 교육 방법을 택하여 수강생의 ‘유창성’을 신장하는데 일정 부분 장점을 지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표준화된 교재로 일정한 학습 진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약 때문에 ‘정확성’에 초점을 맞춘 한국학 전공의 (문법-번역식) 한국어 교육을 보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³¹

운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점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찰스대학교와 세종학당에서 인정하는 회계 처리 항목이 일치하지 않아 예산 계획 및 비용 정산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이다. 예컨대 찰스대학의 경우 “교원(운영 요원) 1인에 대해 지금까지와 동일한 세금 조건으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월 1만 코루나(한화 약 50만원)로 제한되었다. 만약 1만 코루나 이상의 인건비 발생 시 교원의 소득세가 증가할 뿐 아니라 세종학당에서도 해당 교원(운영 요원)에 대해 약 36%의 간접 비용(overhead charge: 사회보장비 25%, 의료보험 9%, 기금 2%)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찰스대학교 철학대학 2016, 2017) 이것은 인건비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지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세종학당에서도 표준적인 운영 방침을 지켜야 하는 만큼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한

31 Horak(2016a: 19)에서는 ‘세종학당’의 장단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세종학당의 장점은 우선 교원의 자격과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보장된 데다 한국에서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등록금이 일반 외국인 학원보다 저렴한 편이다. 세종 한국어 수업은 역시 의사소통 교수법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인과 한국학과 입학 지망생 외에 연습이 필요한 한국학과 학생들도 다니고 있다. 그리고 ‘세종학당’은 제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표준화, 획일화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준이 보장되고 표준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좋지만 현지에 맞지 않는 내용도 있고 또 학습량과 진도가 정해져 있어 직장인이나 주부가 된 성인 학습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 단점이다.”

‘세종학당’의 안정적인 정착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³² 운영 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거나 ‘독립형’ 대신 ‘연계형’이나 ‘협업형’의 새로운 운영 방식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하겠다.³³

2. 학술 성과 현황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맞물리면서 한국학 전공에서는 다방면으로 학술 성과를 축적해 가고 있다. 2010년대 들어 이루어진 성과는 프라하한국학연구소(Prague Center for Korean Studies)에서 개설한 ‘Korean Studies Portal’³⁴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출판된 논문과 서적 및 학술대회 개최 현황을 연도별 통계로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32 또한 세종학당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식음료 비용을 지출해야 하지만 찰스대학교에서는 해당 비용과 관련한 항목이 없고 그와 같은 지출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33 팔라츠키대학의 ‘올로모우츠세종학당(KSI Olomouc)’ 운영 방식이 참조될 수 있다. 이 학당은 세종학당 운영 방침과 체코 현지법 준수를 위하여 체코 주재 한국대사관과 연계된 ‘공관연계형’으로 지정되어 운영중이다(이 논문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찰스대학이 더 이상 ‘독립형’ 방식을 취하지 않기로 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신축 중인 한국대사관 건물이 완공되면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앞으로 대사관과 연계된 ‘공관연계형’ 운영을 통해 새로운 협조 관계가 모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34 korea.ff.cuni.cz/en/node/195.

표8-2012년 이후 주요 학술 성과 현황(전임 교원의 성과만 대상) [출처: 프라하한국학 연구소(Institute of Korean Studies)에서 개설한 'Korean Studies Portal']

| 연도 | 유형 대상 | 논문 출판 | | 서적 출판 | | 학술대회 개최 |
|-------|----------|-------|-------|----------------------------------|------------|------------|
| | | 현대 | 현대 이전 | 현대 | 현대 이전 | |
| 2012년 | | 2 | 5 | 1 (번역서) | 1 (번역서) | 2 |
| 2013년 | | 2 | 6 | 5 (논문집 2, 자료집 1, 번역서 2) | 0 | 3 |
| 2014년 | | 3 | 5 | 3 (저서) | 2 (번역서) | 2 |
| 2015년 | | 1 | 2 | 4 (저서 2, 논문집 1, 번역서 1) | 0 | 2 |
| 2016년 | | 1 | 2 | 2 (번역서) | 1 (번역서) | 2 |
| 2017년 | | 0 | 0 | 2 (논문집 1, 번역서 1) | 0 | 1 |
| 2018년 | | 1 | 2 | 3 (저서 1, 논문집 1, 번역서 1) | 0 | 1 |

표8을 통해 한국학 전공에 특징적인 측면을 대략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학술 성과가 1950년대 이후의 현대에 국한되지 않고 현대 이전을 대상으로 한 성과도 폭넓게 축적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고전 작품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온 한국학 전공의 전통과 관련되는 것이기도 한데 현대

이전의 시기를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또한 그 성과를 꾸준히 축적해 왔다는 점에서 현대에만 초점을 맞추는(혹은 맞출 수밖에 없는) 타 지역의 한국학과는 특별한 차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서적 출판의 경우 학술 성과의 과반 이상이 '번역'에 집중된 경향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경향 역시 배출 인력을 통역자나 번역자로 키우는 데 목표를 둔 한국학 전공의 전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인데 때문에 '번역'의 도구 언어도 체코어에 집중되어 있다. 고전 작품의 체코어 번역이 꾸준히 이어진 가운데 특히 2013년 Miriam Löwensteinova 교수가 『삼국유사(三國遺事)』를 체코어로 번역한 책은 체코에서 출판된 2,000권이 모두 완판되고 한국에서도 '한국문학번역상'을 수상할 만큼 내외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체코어 '번역'의 전통이 강한 가운데 최근에는 영어로 학술 성과를 발표하는 경우가 차츰 생기고 있는데 이를 통해 체코를 넘어 학술 성과가 보다 널리 공유되는 기회도 점차 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학술대회인 경우 개최 횟수가 주춤한 대신 최근 들어 개최 규모가 확대된 점이 주목된다. 특히 2017년에는 찰스대학 한국학 전공이 호스트가 되어 3박 4일 일정의 제28회 AKSE(유럽한국학회) 국제학술회의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³⁵ 이밖에 크고 작은 학술대회를 조직하고 개최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한국학 전공은 이제 Zemánek(2017)에서 천명한 대로 한국학의 '주변'에서 '중심'으로(from margin to center) 도약할 가능성을 점차 키워 가고 있다고 하겠다.

35 지난해(2019년) 8월에는 2박 3일 일정의 제14차 KOREA학 국제학술토론회(The 14th ISK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를 유치, 개최하기도 하였다.

VI. 맺음말

이 글에서는 체코 찰스대학의 한국학 전공을 중심으로 찰스대학의 한국학 운영 현황을 학생과 교원 현황, 강좌 현황, 기타 현황으로 나누어 점검하였다. 필요에 따라서는 중국학, 일본학 등과 비교하면서 상호 간의 차이를 파악하기도 하였다. 체코 찰스대학은 이미 1950년대부터 한국학을 운영하며 '학문 중심의 한국학'을 뚜렷이 지향해 왔을 뿐 아니라 그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에서도 '독해'와 '정확성'을 중시하는 교육 방법을 꾸준히 유지,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전통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한국학 전공이 발전해 나갈 방향에 맞추어 소박하나마 몇 가지 과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기로 한다.

첫째, 찰스대학의 한국학은 평가 지표로 보아 '발전 단계'를 넘어 '성숙 단계'로 나아가는 면모를 보여 준다. 그러나 '성숙 단계'에 속한 서유럽 대학과 비교하면 아직 격차가 뚜렷하여 그 격차를 줄여 나갈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현재 학사 과정에 집중된 관심도가 석사, 박사 과정으로 이어져 '학문 중심의 한국학'을 뒷받침할 방안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성숙 단계'를 뒷받침할 전임 교원 확충을 도모하면서 이들이 현지에서 한국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체코 현지 대학의 역량과 한국의 지원이 함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지점을 지속적으로 관찰"(곽부모 2012: 63)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체코 현지에 적합한 '실효성'과 '유연성'이 좀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세종학당'은 찰스대학의 한국어 교육을 보완하는 데 유익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나 표준화된 운영 방침을 지켜야

하는 사정상 회계나 행정 처리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빚어질 수 있다. 현지의 필요에 부응하면서 불필요한 문제를 줄이는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한다면 '세종학당'의 안착을 통해 한국학 진흥에 필요한 보다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필요하다면 세종학당재단이나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지원하는 한국어/한국학 강사 파견 제도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찰스대학의 한국학 전공은 남북한 모두와 교류 및 협력을 수행한 경험이 어느 곳보다 풍부한 장점이 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 북한 중심의 '조선학'과 남한 중심의 '한국학'이 서로 조화를 모색하고 협력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조선학'과 '한국학' 사이의 경쟁은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갈등 요소는 줄이고 협력 요소는 키우는 지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곽부모, 「러시아연방대학과 유럽대학의 한국(어)학 교육과정 비교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51-3, 2016, 69-91쪽.
- _____, 「팔라츠키대학교 비즈니스한국어학 전공의 현황과 발전 방안」. 제7차 한국어교육 국제학술대회(유럽 한국어교육자협회, 핀란드 헬싱키대학교, 2018.4.12-13), 139-147쪽.
- _____, 「체코에서의 한국학 교육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 『세계 속의 한국어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지역어와 문화가치 학술총서 6), 보고서, 2019, 53-69쪽.
- 곽수민, 「해외한국학 동향 분석 및 발전 요인 연구」. 『정신문화연구』 35-3, 한국학 중앙연구원, 2012, 211-241쪽.
- 박수영, 「동유럽 지역의 한국학의 현황과 과제」. 『역사문화연구』 25, 2006, 399-422쪽.
- 서진숙, 「학문 목적 학습자의 한국어 어휘 및 말하기 평가의 사례 연구: 체코 찰스대학 한국학 전공자를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24차 국제학술대회(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4.8.9-10), 165-175쪽.
- 서진숙·장미라, 「온라인 강의를 활용한 해외 대학의 블렌디드 러닝 사례 연구: 체코 찰스대학교 한국학과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65, 이중언어학회, 2016, 223-256쪽.
- 찰스대학교 철학대학, 「2016년도 프라하 세종학당 결과 보고서」. 2016.
- _____, 「2017년도 프라하 세종학당 결과 보고서」. 2017.
- 푸체크, 블라디미르,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한국학 연구」. 제8차 퇴계학 국제학술대회(퇴계학연구원, 1985.8.27-29), 551-560쪽.
-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 한국학 백서』. 2007, 을유문화사.
- _____, 『2018 해외 한국학 백서』. 2018, 을유문화사.
- Horák, Tomáš, 「원리로 배우는 발음, 체계로 배우는 문법」.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9, Sofia, 2008, 129-144쪽.
- _____, 「체코 내 한국학 연구와 한국어 교육의 연계: 전통 어문학 연구의 필요성」. 제21차 국제학술대회(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1.8.6-7), 108-113쪽.
- _____, 「체코 한국학 교육의 동향과 한류」. 제13회 한국어문학 국제학술대회(폴란드 바르샤바대학교, 2012.10.15-16), 27-31쪽.

- _____ (2016a), 「체코 내 한국학 및 한국어 교육」. 제3차 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체코 프라하 찰스대학교, 2016.2.22-25), 15-20쪽.
- _____ (2016b),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 능력을 중심으로 한 교육의 통합: 학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읽기 교육」. 제26차 국제학술대회(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6.8.6-7), 251-260쪽.
- Horák, Tomáš, 「체코 카렐 대학교 한국어 프로그램의 체계화와 한국어 교수법」, 『효과적인 한국어 교수법과 말하기 평가 방안』. 2018 해외한국어 교육자 워크숍(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8.12.14-15), 53-58쪽.
- 황문환, 「미국 코넬(Cornell) 대학의 한국학 운영 현황」. 『정신문화연구』 32-4,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363-382쪽.

Filozofická Fakulta, *Výroční Zpráva*(Annual Report), 2009-2018.

Löwensteinova, Miriam, "Final Report (Core University Program for Korean Studies)," 2015.

Pucek, Vladimír, *Dějiny koreanistiky. Vznik a rozvoj koreanistiky v Československu/České republice a její přínos k prohloubení vzájemných vztahů s Koreou*(A History of Czech Korean Studies), the Institute of the Far East,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2015.

Zemánek, Marek, "From Margin to Centre: 67 Years of Korean Studies in Prague," *International and Intellectual Trends of Korean Studies in Central-Eastern Europe,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Countries*, 2017 AK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 2017, pp. 97-109.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체코 찰스대학 인문대학(Filozofická Fakulta[Faculty of Arts]) 한국학 전공을 중심으로 찰스대학의 한국학 운영 현황을 한국학 학생과 교원 현황, 한국학 강좌 현황, 한국학 관련 기타 현황 등으로 나누어 점검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학, 일본학 등과 비교하면서 상호간의 격차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기도 하였다. 체코 찰스대는 이미 1950년대부터 한국학을 운영해 왔을 뿐 아니라 타 대학과 비교할 때 '학문 목적의 한국학'에 대한 지향을 뚜렷이 유지해 왔다. 따라서 찰스대학의 한국학 운영 현황을 분석한 이 글은 찰스대학을 넘어 중유럽 내지 동유럽의 한국학 진흥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19. 9. 23.

심사일 2019. 11. 21

게재 확정일 2020. 4. 29.

주제어(keyword) 체코(Czech), 찰스대학(Charles University), 프라하한국학연구소(Prague Center for Korean Studies), 한국학(Korean Studies),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 사업(Core University Program for Korean Studies)

Abstracts

On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Studies at Charles University, Czech Republic

Hwang, Mun-hwan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Studies at Charles University by focusing on the Korean Studies major in the Filozofická Fakulta [Faculty of Arts]. In some cases, it compares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studies and Chinese or Japanese studies. Charles University, which housed Korean Studies since the 1950s, has distinctly maintained its orientation of pursuing Korean Studies for academic purposes when compared to other universities. This article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studies at Charles University can be a useful resource for finding ways to promote Korean studi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beyond Charles University.

